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미국 경제]

- Bloomberg: 12월 미 기업들, 일자리 늘렸다
- FinanceYahoo: 미 신규 실업 청구 건수 예상보다 줄어
- WSJ: 지난 의사록, '금리 종결했지만 인하 시기는 불투명'
- WSJ: 왜 미국 기업들은 해고하는 분위기가 아닐까

#### [미국 금융]

- Bloomberg: 모건스탠리, 2024년 달러 랠리 입장 조정

#### [글로벌 물류]

- Bloomberg: 컨테이너 스팟 운임, 173% 상승 ... 홍해 리스크 때문

#### [미중 관계]

- CSIS: 2024년 미중 관계: 양측의 갈등없는 경쟁 관리

#### [반도체]

- CNBC: 바이든 행정부, Microhip Technology에 1억6천 2백만불 지원

####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CNBC: Adobe Analytics, "연휴 동안 온라인 소비 5% 가까이 상승"
- WSJ: 미 자동차 업계, 작년 판매량은 반등했지만, 올해 어려움 예상
- Bloomberg: 월그린 주가 11% 급락하다 ... 배당금 삭감 때문

####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 [미국 경제]

### **Bloomberg: US Companies Ramped Up Hiring in December, ADP Data Show**

#### **12월 미 기업들, 일자리 늘렸다.**

- 미국 민간기업의 일자리는 지난달에 16만4천개가 늘어 지난 8월 이후 가장 큰 폭인 것으로 관련 조사업체ADP이 오늘 목요일 발표했다. 임금 성장세는 지난 2021년 이래 가장 약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
- 이같은 현상은 경제가 계속 성장하고 있으며 인플레이는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일자리 성장은 주로 레저, 현대 산업, 교육, 헬스케어등 서비스가 주도했으며 제조업은 4개월째 계속 줄고 있다.
- 지역적으로는 서부와 동북부가 일자리가 늘었으나 남부와 중서부는 줄었다.

Bloomberg 기사

## FinanceYahoo: US weekly jobless claims fall more than expected 미 신규 실업 청구 건수 예상보다 줄어

- 지난주 미 신규 실업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줄어들어 노동 시장이 비교적 계속 견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 12월 30일 끝나는 주의 청구건수가 1만8천건 줄어든 2만2천건으로 나타났다. 당초 목표는 21만5천건.
- 노동시장은 2022년 3월 이래 연준의 5백25베이시스 포인트 금리 인상 단행한 후에 여전히 냉각 상태를 보이고 있다.

Finance Yahoo 기사

## WSJ: Fed Minutes Suggest Rate Hikes Are Over, but Offer No Timetable on Cuts

### 지난 의사록, '금리 종결했지만 인하 시기는 불투명'

- 연준 관리들은 지난달에 금리 인상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발표된 의사록을 보면 연준 관리들은 어떠 부터 금리를 인하할지는 의미있는 논쟁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거의 모든 관리들은 정책 금리가 올해 말 이전에 내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어제 발표된 의사록을 보면 40년만의 가장 빠른 금리 인상후에 다음번 통화 정책 구간을 어떻게 해야 할지 불확실성을 보여주었다.

WSJ 기사

## WSJ: Why Companies Still Aren't in a Firing Mood

### 왜 미국 기업들은 해고하는 분위기가 아닐까

- 작년과는 달리 미국 경제의 침체 우려가 줄고 있다. 그렇다고 일자리 증가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내년에도 노동 시장이 크게 냉각되자는 않을 것이다.
- 미국 기업들도 최근 실적 발표를 통해 경기 침체 가능성을 낮추고 있다. FactSet에 따르면 4분기에 '경기 침체'라는 단어가 한번 이상 포함된 실적 발표는 239건에 불과했다. 2022년 4분기의 790건보다 훨씬 작은 수치다.

WSJ 기사

## [미국 금융]

## Bloomberg: Morgan Stanley Drops Bet for Dollar to Rally in 2024

## 모건스탠리, 2024년 달러 랠리 입장 조정

- 달러 강세 입장을 보이는 기관은 현재 별로 없다. 이중 한군데인 모건 스탠리는 연준이 비둘기적 전환 정책으로 바뀌면서 국채 수익률이 하락하는 가운데 미 달러 통화에 대한 전망을 낮추었다.
- 달러화 전망을 강세에서 중립으로 변경했다.
- 이 은행은 당초에 적어도 11월 중순부터 달러 강세에 베팅을 해왔으며 2분기 달러 현물 지수가 현재 수준에서 약 8%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었다.

Bloomberg 기사

### [글로벌 물류]

## Bloomberg: Spot Container Shipping Rates Soar 173% on Red Sea Threats

### 컨테이너 스팟 운임, 173% 상승 ... 홍해 리스크 때문

- 홍해 리스크로 인해 선복량이 줄면서, 아시아, 유럽 그리고 미국의 컨테이너 운송 단기 운임이 오르고 있다.
- 화물 예약 및 결제 플랫폼인 Freightos.com은 어제 수요일, 아시아에서 북유럽으로 향하는 40피트짜리 컨테이너로 상품을 운송하는 현물 운임이 4천불을 넘어섰으며, 이는 중순 대비 173% 상승한 것이라 밝혔다.
- 또한, 아시아에서 지중해까지의 운임은 5천1백75불까지 상승했으며, 1월 중순부터 6천불 이상을 요구하는 선사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아시아에서 북미 동쪽 해안까지의 현물 운임은 55% 상승해 3천9백 불을 기록했다.
- 한편, 이번 사태는 유조선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운하를 통해 지중해에서 일본으로 휘발유나 경유를 운송하는 선박의 운임은 12월 초 8천 달러에서 이번 주 2만6천 달러로 증가했다.

Bloomberg 기사

### [미중 관계]

## CSIS: U.S.-China Relations in 2024: Managing Competition without Conflict

### 2024년 미중 관계: 양측의 갈등없는 경쟁 관리

- 양국 관계는 앞으로 완전한 디커플링이나 강한 군사 충돌같은 사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근본적인 차이점을 해결하고 더 큰 협력으로 이어지는 진정한 해빙이나 협력 가능성도 낮다.

- 올해 양국 관계의 악화를 막으려면 적극적인 외교가 필요하다. 대만해협과 남중국해에서의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무역, 기술 인공 지능, 안보문제 등에 새로운 양국간 대화 채널을 만들어야 한다.
- 중국 정책에 대해 유럽과 아시아 동맹국들간의 협의와 조정이 필요하다.
- 중국 정책의 목표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예컨대,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어떻게 강화하고 미국 기술 혁신 발전, 중국에 대한 의존도 줄이기 등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CSIS 기사

## [반도체]

### CNBC: Biden administration announces \$162 million to expand computer chip factories in Colorado and Oregon

#### 바이든 행정부, Microchip Technology에 1억6천 2백만불 지원

- 바이든 행정부가 국내 반도체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Microchip Technology에 1억6천 2백만 달러를 지원하며, 이는 벌써 미국 반도체 업계에 대한 두 번째 지원이다.
- 상무부는 이번 투자금이 콜로라도주 스프링스 공장 개선에 9천만 달러, 오리건주 그레섬 공장 확장에 7천2백만 달러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 Microchip Technology는 이번 투자를 통해 국내 생산량을 3배로 늘리고, 해외 공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정부 관계자는 이번 지원으로 향후 10년간 700개의 건설 및 제조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CNBC 기사

##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CNBC: Online holiday spending jumps nearly 5% to new record, Adobe Analytics says

#### Adobe Analytics, “연휴 동안 온라인 소비 5% 가까이 상승”

- Adobe Analytics에 따르면, 지난 연휴 동안 온라인 소비가 거의 5% 상승해 그 규모가 11월과 12월에만 2천2백21억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연휴 동안 소매기업들의 파격적인 할인 혜택이 온라인 구매를 부추긴 것으로 보이며, 소비자들 사이에선 지금 구매하고, 나중에 결제하자는 소비심리가 크게 작용했다.

- 그러나, 이런 온라인 판매 호조가 2024년 소비 전망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며, 연휴 동안의 소비자들은 무리해서 물건을 구매하는 경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CNBC 기사

### WSJ: U.S. Auto Sales Bounced Back in 2023 미 자동차 업계, 작년 판매량은 반등했지만, 올해 어려움 예상

- 리서치 기업인 Wards Intelligence에 따르면, 미국의 신차 판매량이 2023년에 1천 5백50만대에 달해 작년 대비 12.4%가 증가했다.
- 그러나, 자동차 재고 수준이 계속 상승하고 있고, 고금리가 미국의 자동차 구매자들의 재무에 영향을 주면서 올해는 자동차 기업에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현대 자동차 아메리카의 CEO인 Randy Parker는 자동차 기업 간의 경쟁이 치열해져 2024년은 의심할 여지 없이 매우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라 말했다.
- 전기차 판매량은 2023년에도 상승세를 이어 나갔지만, 성장률은 감소하고 있으며, 일부 자동차 기업들은 전기차 투자를 철회하거나 연기했다.
- 전기차 가맹점과 분석가들은 팬데믹 이후 높아진 전기차 가격은 소비자들이 전기차 구매를 주저하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말한다.
- 전기차 기업들이 가진 또 다른 어려움은 7천 5백불의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이 바이든 행정부에 의해 제한된 것이다. 올해부터 미국에서 생산됐더라도 중국을 포함한 외국산 배터리 부품을 사용한 차량은 세금 공제를 받지 못한다.

## WSJ 기사

### Bloomberg: Walgreens Plunges as Dividend Cut, CEO Says More Changes Coming 월그린 주가 11% 급락하다 ... 배당금 삭감 때문

- 월그린의 새로운 CEO가 배당금을 삭감하고, 앞으로 추가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 밝힌 후 이 기업의 주가가 급락했다.
- 이 기업 CEO인 Tim Wentworth는 오늘 목요일, 분기 배당금을 기존의 절반인 주당 25센트로 줄이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 그는 이런 조치가 현금 흐름을 개선해 약국 및 의료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자본금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말했다.
- 월그린의 주가는 11% 가까이 급락했으며, 이는 6월 이래로 하루 만에 가장 크게 떨어진 것이다. 이 기업의 주가는 이미 작년에 30% 떨어졌다.

Bloomberg 기사

## [보고서]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금융시장정보 (Shinhan Society Daily Letter)****리치먼드 연은 총재 "연착륙 가능성 높지만, 필연 아니다"****바킨 "인플레이션 완화에 대한 추가 확신 필요"**

토머스 바킨 미국 리치먼드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3일(현지시간) 미국 경제의 연착륙 가능성은 커졌지만, 확실한 것은 아니라면서 금리인하 지지에 앞서 인플레이션 완화에 대한 추가 확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바킨 총재는 이날 미 노스캐롤라이나주 롤리 상공회의소에서 "연착륙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지만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수요와 고용,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모두 급등했지만 이제 정상으로 돌아가는 길목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_office@kocham.org](mailto:Unsubscribe_office@kocham.org)[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org